

선택지 넓혀준 KIA 양현종, 화답하나



진로 결정 시한 D-2...미국 진출 의지 강하지만 상황 녹록치 않아
KIA, 팀 에이스 우대 속 잔류 명분 찾아주기...미리 러브콜

여전히 미국으로 향해 있는 양현종의 시선, KIA도 양현종을 보고 있다. 해외진출을 선언한 FA 양현종이 디데이로 삼은 20일이 다가오고 있다. 20일은 양현종 측이 비자-자거력리 문제 등을 고려해 미국 진출 시 정상적으로 시즌을 준비할 수 있다고 판단한 날짜다. 물론 KBO리그로 발길을 돌리더라도 2월 1일 시작되는 스프링캠프에 맞춰 새 시즌을 시작하기 위해 20일을 시한으로 삼았다.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로 현재 상황이 예전 같지 않지만 양현종은 여전히 메이저리그 팀들의 오퍼를 기다리고 있다.

처음 해외 진출을 이야기했을 때보다 많은 조건을 생략한 채 '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놓고 메이저리그 팀들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빅리그 스프링캠프 초청이 보장된 마이너리그 계약 역시 '도전'의 한 가능성 중 하나다. 양현종의 에이전트인 최인국 스포스타즈 대표는 "양현종 선수가 미국에 다녀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한국에서 좋은 조건으로 뛰면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미국 도전에 대한 의사가 강하다"며 "미국 FA 상황도 늦게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다. 마이너 거부권 아니어도 가겠느냐 이런 부

분에 관한 이야기들은 있다. 20일까지 미국 오퍼를 최대한 받아보고 그걸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양현종을 향해 KIA의 구체적인 구애도 시작했다. 앞서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던 양 측은 지난 14일 광주에서 대면했다. 이날 KIA는 대략적인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건넸고, 19일 다시 한번 최인국 대표가 광주를 찾아 KIA와 면담할 예정이다. 디데이로 삼은 20일 전에 양현종의 거취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여전히 양현종의 시선이 미국으로 향해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녹록치 않은 현지 사정을 파악한 KIA도 본격적으로 양현종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양현종의 거취가 KBO리그 팬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멀어지는 이강인-발렌시아

이, 지난해 재계약 제안 거절 후 진전 없어...현지선 이적설 꾸준

이강인(20)과 소속팀 스페인 프로축구 발렌시아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모양새다. 스페인 마르카는 최근 "이강인은 지난해 여름 발렌시아의 재계약 제의를 거절했다. 구단 측이 협상을 이어가려 하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강인은 유스 시절부터 함께 해온 구단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지만, 재계약을 우선순위로 두지는 않는다"며 "2021년판 페란 토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인과 함께 발렌시아 유스팀에서 성장한 토레스(21)는 지난 시즌 1군에서 주전으로 자리매김하는 듯했으나, 재계약 문제를 놓고 구단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지난해 8월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로 이적했다. 내년 6월 30일이면 계약이 만료되는 이강인도 토레스처럼 다른 팀으로 떠나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강인의 이적설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2011년 10살의 나이에 발렌시아 산하 유스팀에 입단한 이강인은 2018년 구단과 재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1군에 데뷔했다. 당시 바이아웃 금액으로 8000만유로(약 1067억원)를 내걸 만큼,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구단의 미래'로 여겼다. 그러나 이강인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2018-2019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에서 교체로 3경기를 뒀던 그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17경기(선발 3회)에 나섰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하비에르 그라시아 감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입지가 달라질지 기대했으나, 라리가 12경기(선발 7회)와 코파 델 레이(국왕컵) 1경기에 선발로 나선 게 전부다.



선발 출전 횟수도 적었던데다 세 시즌 동안 폴타임을 소화한 경기는 한 손에 꼽을 정도다. 마르카는 "이강인은 이번 겨울 몇 차례 이적 제안을 받았지만 움직이지는 않았다. 그는 더 좋은 계약 조건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팀을 찾고 싶은 것"이라며 "발렌시아는 올해 여름 이적시장에서 이적료를 받고 그를 다른 팀에 보내거나, 혹은 계약이 끝난 뒤 이적료 없이 놓아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강인에 대해서는 "아직 1군에 정착하지 못하고, 지난 시즌 감독의 경질과 코로나19 확산 등 여러 상황 속에 최고의 기량을 보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김민재, 손흥민과 한술밥 먹나

국가대표 수비수...토트넘, 첼시서 관심 보이자 영입 움직임

'손세이셔널' 손흥민(29)의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25·베이징 귀안·사진)의 영입에 다시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영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지 미러는 최근 "토트넘이 '괴물' 김민재가 첼시로 이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입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토트넘은 중앙 수비수 김민재 영입에 처음 관심을 보였고, 이제 영입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풋볼런던은 "손흥민이 김민재의 영입을 준비하는 토트넘에 선수에 대한 평가를 전달한 바 있다"라며 "토트넘은 손흥민의 국가대표팀 동료인 김민재의 영입 관심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영국 언론들은 지난해 여름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김민재 영입 관심을 크게 전했다. 토트넘이 유력한 대상으로 떠올랐다. 토트넘은 중앙 수비수 안 페르통언이 벤피카로 이적하면서 대체 자원을 모색했고, 김민재의 소속팀인 베이징 귀안과 몸값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영국 언론들은 손흥민이 구단에 김민재에 대한 평가를 전달하면서 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민



재는 결국 지난해 여름 유럽 무대 진출에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겨울 이적시장이 다시 열리면서 김민재가 다시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의 영입 대상으로 떠올랐다. 미러는 "런던라이벌 첼시가 김민재에 관심을 보이면 토트넘이 영입 경쟁에 나설 준비가 됐다"라며 "토트넘은 첼시와 영입 경쟁에 참여할 새로운 움직임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12월 베이징과 계약이 끝나는 김민재의 이적료 규모는 지난해 1500만 파운드(약 226억원)로 평가됐지만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몸값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베이징 귀안도 신중하게 이적 문제를 검토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금 향해 삼만리 16일 국제바이애슬론연맹(IBU) 주최로 독일 오베르호프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월드컵 남자 계주(4×7.5km)에서 노르웨이의 베틀레 사스타드 크리스티안센(왼쪽 첫 번째) 등 선수들이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산 'ek리그 2020' 초대 챔피언

4개월 대장정 마무리

축구·e스포츠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안산이 'ek리그 2020'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다. '올레티비와 올트라기어가 함께하는 ek리그 2020'가 지난 16일 아프리카TV 프리업스튜디오에서 열린 결승전을 끝으로 4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한국e스포츠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FIFA 온라인 4' 기반 첫 e스포츠 대회인 마지막 경기는 안산과 대전의 대결로 전개됐다. 이번 대회에서 약체로 꼽혔던 안산은 5판 3선승제로 진행된 결승전에서 대전에 처음 2세트를 내줬지만, 이후 3경기를 연달아 잡으며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결승전에 앞서 열린 3, 4위전에서는 제주가 포항을 3-1로 제압하며 3위에 올랐다. 안산의 우승으로 끝난 ek리그는 대회 시작 전

부턴 화제를 모았다. K리그 22개 구단의 대표팀을 선발하는 예선전에 총 595팀이 지원해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고, 지난해 12월 17일 아프리카TV를 통해 생중계된 조별리그 개막전에는 최대 동시접속자수 4만 3000명, 누적 접속자수 80만명을 기록했다. 결승전은 최대 동시접속자수 2만 6000명, 누적 접속자수 40만명을 기록하는 등 아프리카TV에서 생중계된 ek리그 총 23경기의 누적 접속자수는 300만명에 달했다. 한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안산의 ek리그 대표선수 정수창, 김경식, 김유민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함께 제닉스 게이밍의 자, EACC 한국대표 선발전의 오프라인 예선 진출권이 상품으로 주어졌다. 2위를 차지한 대전은 상금 500만원, 3위 제주는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